

제3차 G-20 정상회의: 국제정치경제적 성과와 향후 전망

이 동 휘 교수 (Prof. LEE Dong-hwi)

2009년 9월 24~25일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는 당면한 위기 해소라는 단기적 관점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제 경제 운용에 착안하였고, 경기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정책 공조 위주에서 기후변화 대책 등 좀 더 포괄적인 경제 관련 이슈를 다루었으며, 제도화와 핵심적 포럼화에 대한 정상간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 등에서 ‘변환적 성공’(transformational success)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2010년 11월 비G-8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정례화가 결정된 이후 실질적인 최초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포착함과 동시에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건설을 위한 유용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2010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 자격을 지닌 주요3국(management troika)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의제의 개발과 대안의 제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자국의 경제 상황도 조속히 안정시켜 나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의 국제정치경제적 성과

첫째,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2012년부터 상향된 자본 규제 기준의 시행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시한 규제가 강화된 보수(compensation) 체계의 완전 이행 ▲신규 무역·투자 장벽 구축을 금지하는 동결(standstill) 원칙 재확인 ▲DDA 협상 타결 의지 재천명 등을 통해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 조치들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또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경제 회복이 아직은 불완전하므로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시행이 시기상조이지만, 전반적인 회복세를 감안해 향후 출구전략이 시의성을 잃지 않도록 재무장관회의가 IMF 및 FSB와의

협조 하에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둘째,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를 구축함과 동시에 상호평가 지원, 정책 집행 감시 및 개도국 개발 자원 조달 등에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될 국제경제 기구(IMF, 세계은행 등)의 개혁 문제도 추진해 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협력체계가 무역 불균형 시정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틀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셋째, 금번 정상회의가 G-20를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핵심적 포럼’(premier forum)으로 지정함으로써 G-20를 21세기 국제경제 질서를 관리해 나갈 “세계적 차원의 협치(協治)의 기제”(global governance)로 인정하고, 이의 연례 개최를 통해 더욱 제도화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는 것은 비단 경제 분야에서만이 아닌 정치 분야에서의 향후 변화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과제와 향후 전망

첫째, 위기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합의에 따라 얼마나 빨리 내부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인가, 즉 ‘국제적 합의와 국내적 지지 동원 간의 단절 문제’(international-domestic disconnect)를 여하히 극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둘째, 금번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금융·경제 위기의 구조적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무역 불균형 문제의 시정(rebalancing)이 가능해진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나, 무역 불균형 시정은 미국과 중국 공히 국내정치적 민감성이 국제 협력의 당위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고, 불균형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의미가 너무나 심대하다는 점 등의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단시간 내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번 정상회의에서 G-20가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핵심적 포럼으로 지정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G-20가 G-7/G-8을 대체하게 될 것임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으나, G-20가 스스로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 유용성을 입증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G-7/G-8

회원국들의 지위 보존 욕구가 강하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 질서를 관리해 온 G-7/G-8 체제가 단시간 내에 그 기능을 G-20에 전면적으로 위양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일정 기간 G-20와 G-8은 광의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적인 구도를 고안하여 병존해 나가거나, 경제와 안보 분야를 나누어 분담하는 분업적인 구도로 국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